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종광 소설가

스무 살 때 강원도의 어느 호수 안에 있는 무슨 섬으로 엠티(MT)를 갔었다. '바퀴벌레 한 쌍'이라고 불리던 두 친구의 연약식을 치러주었다. 너무나도 생생한 추억이다. 어이없게도 나만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동기들에 의하면, 우리는 그곳에 엠티를 간 적이 없었다. 대학 다니는 내내 '연약식' 따위를 치러 준 커피를 전혀 없었다. 순전히 나만의 기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그 기억을 믿고 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정말 없었던 일의 기억이라면? 아마도 공상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기억으로 자리 잡은 것일 테다. 꿈이었을 수도, 상상한 스토리일 수도, 망상일 수도 있다. 엠티 가서 연약식 하는 이야기, 얼마든지 공상할 수 있다. 내

기억하는 법

바람의 변형이었을 수도 있다. 연약식 같은 특별한 체험을 해 보고 싶었던 어쭙잖은 청춘의 간절한 몽상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실제 기억처럼 대뇌피질 어딘가에 박힌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내가 들었던, 보았던, 읽었던 장면들이 한 줄기로 꿰어져 내가 겪은 일로 둔갑한 것. 누군가에게 '바퀴벌레 한 쌍'으로 불리는 커피를 애기를 들었고, 어느 드라마에서 대학생들이 연약식 치르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을 조합하여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본 일로 믿어 버리게 된 것이다.

나만 이렇게 이상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확신하지만, 어쩌면 실제로는 없었던 일일 수도 있는 기억. 나처럼 극단적인 기억의 모습은 드문 일일지라도, 서로 다른 기억의 충돌은 흔한 일일 테다.

남자들의 군대 얘기가 그토록 길고 격렬한 것은 기억의 불일치 때문인 경우가 많다.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창들 모임에서 학교 때 얘기만으로 밤을 새울 수 있는 것은, 기억들의 중구난방 때문이다. 분명히 같은 사람들이 같은 일들을 겪었는데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기억을 대하는 태도다. 나처럼 내 기억이든 타인의 기억이든 모조리 의심하는 이도 있다. 대개는 내 기억도 타인의 기억도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다는 식의 열린 자세를 유지한다. 그래야 그 판이 유지되니까. 물론 판이 깨지든 말든 자신의 기억을 맹신하는 이들도 있다. 내 기억은 무조건 틀림없고, 타인의 기억은 무조건 틀렸다는 거다. 이런 사람이 둘이 상이면 필시 고성이 오가게 된다.

기억을 나누다가 싸우지는 않더라도 왜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걸까. 나는 타인에게 잘 기억되고 싶었던 것일 테다. 이틀테면 일관되게 관참은 연행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거다. 내 기억으로 나는 줄곧 점잖게 말하고 행동했는데, 타인이 몸을 언행 불일치자로 기억하고 있으니 언짢아질 수밖에 없다.

어쨌든 오래도록, 그 대체로운 기억은 사람의 것이었다. 실제 기억이든, 공상 기억이든, 표절 기억이든 내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스마트폰이 하는 세상이 되었다. 스마트폰에 담아 버리면 끝인 거다.

물론 가장 고통 받게 될 사람들은 특권층이나 연예인처럼 온 국민이 다 아는 분

들, 이른바 '공인'일 테다. 공인의 말과 행동은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기억된다. 하기는 연예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특권층은 별로 문제될 게 없을 수도 있겠다. 그분들의 주특기가 '모르쇠'와 '아니라고 딱 잡아떼기'와 '내로남불'이니까. 그레도 과거처럼 대놓고 적폐를 저지를 수는 없겠다. 딱 잡아떼고 말면 되는 언행도 있겠지만, 감옥에 가야 할 언행도 있으니까.

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삭제한 기억을 바로 잡아 주거나 복원해 주는 등 스마트폰의 순기능은 상당하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픈 일이다. 반주 없이도 외워 부르는 노래가 수도룩하던 사람이 노래방 기계 없이는 노래를 못 부르듯, 그렇게 길을 잘 찾던 사람이 내비 없으면 길치가 돼 버리듯,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 때 때 마음을, 내 생각을, 풍경을, 타인의 언행을 떠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어떤 기억일지라도, 기억 행위야말로 사람을 사람답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 기억하는 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억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종교칼럼

비움으로 가득 채우자



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시절이다. 주머니 속의 따뜻한 손난로가 지친 삶의 온기를 높여주고 정다운 친구의 다정스런 안부 전하듯 한 통이 내면의 기쁨을 배가시켜 주는 계절이다.

문득 교당 앞마당의 나무들과 꽃들을 바라보며 식물들은 어떻게 겨울을 날까 하는 생각을 한다. 나무들은 겨울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가을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 가을이 내려가면 광합성(탄소동화 작용)기능이 떨어지는 잎을 떨구어 최소한의 잎만 유지하며 필요한 에너지(유지 비용?)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체내의 수분량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으로 최소화한다.

기 고

문화전당을 최고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양성관 동강대학교 교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문화예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 신념이 만나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인 예술 기관이자 문화 교류 기관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는 배경에서 2015년 11월 25일 개관하였다. ACC는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의 5개 원으로 구성되어 공연 및 전시, 축제, 교육,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 공간인 아시아 문화광장, 하늘마당, 열린 마당 등이 있다. 개관 4년이 된 현 시점에서 ACC가 어떠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ACC의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외부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아주 좋은 공연을 지인을 통해 불과 3시간 전에 연락을 받았다. 공연 관람 후 정보를 제공해 준 지인이 얼마나 고맙웠는지 모른다.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유명한 공연들은 일반적으로 몇 개월 전부터 광주 시내에 배너로 제작되어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ACC 공연은 AC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야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외부 홍보를 거의 본 적이 없다. ACC에서는 공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시나 축제, 교육,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타곳에 맞추어 시내 길거리 뿐 아니라,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여 대학까지 교육 기관에 홍보가 필요하고 관공서나 병원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프로그램을 잘 알려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 예술인에게 대관이 편리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주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공연장은 적어서, 지역 예술인들이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대관 문제이다. ACC가 개관됨으로써 대관 문제가 충분히 좀 풀릴 것

은 것과 같은 영향을 몸매 미친다고 한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다고 한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제도적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한다. 우체국 집배원들이 노인들을 찾아가 대화를 하고 집안일도 도와준다고 한다.

다정도 병이지만 외로움은 더 큰 병이 되기도 한다. 자연 속의 나무들은 누가 말동무를 해주지 않아도 잘 사는데 유독 사람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

혼자 있다는 것은 밖으로 향하는 시선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것이고, 외로움과 관계가 깊다. 반면에 홀로 있다는 것은 안으로 향하는 시선이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고독과 관계가 있다. 또한 외로움이 상대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라면 고독은 절대적이고 존재적인 것이다.

혼자 있을 때는 외로워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만 홀로 있을 때는 겨울 숲처럼 함께 있으므로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

한 순간은 항상 홀로 있을 때이다. 홀로 있음의 시작은 통찰의 시작이다. 통찰에서의 통자는 통할 통(通)자를 쓰지 않고 삼수변에 갈을 동자, 동굴 동(洞)자를 써서 통찰(洞察)이라고 한다.

예컨대 우물을 공유한 공동체가 동네였고 인류의 원조적 동네는 동굴이다. 동굴 속에서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을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다.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자비가 함께하지 않으면 독단이라는 것이다. 자비가 우리 마을에 머물면 동장, 부녀회장이 되는 것이고 광주광역시 전체에 머물면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대한민국에 머물면 대통령이 되며, 인류에 머물면 성인이 되는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풍요로운 곳이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공핍한 곳이다"라고 했다. "위에 견주면 모자라고 아래에 견주면 남는다"는 옛말도 있다. 본래면목의 계절에 비움을 통한 통찰로 위와 아래가 없는 절대의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하는 겨울이 되기를 심축한다.

기 고

문화전당을 최고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으로 기대를 했으나, ACC를 이용하는 광주 예술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대관의 절차의 어려움이거나 대관료 때문일 것이다. 현재 공연을 위한 대관이 이뤄지는 곳은 예술극장 1관과 2관인데, 규모가 작은 2관의 경우는 순수 예술일 경우 시내 타 공연장과 비슷한 대관료로 지역 예술인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ACC 진입로에 대한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본다. ACC는 지상 4층 지하 4층, 연 건평 4만 7500평에 이른 다. 규모면에서 1만 4000평 정도인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세 배에 달한다. 또한 ACC는 광주지하상가와 맞닿아 있기에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5·18 민주광장에서 ACC 행사장을 찾으려 할 때 미로 속을 헤매듯 복잡하다. 따라서 5개 원으로 진입할 때 색상으로 구분하는 서울 지하철 노선처럼 입구에서 도착 지점에 이르기까지 색상으로 길 안내를 하면 좋겠다.

네 번째는 하늘마당을 시민과 함께하자는 열린 장소이자 다양한 콘텐츠를 포괄하는 거리 공연(버스킹)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금년 여름월부터 거의 매일 하늘마당에서 다양한 장르의 거리 공연

이 이루어졌고 전국에서 모여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겁게 어우러지는 한마당 축제가 이루어졌다. 공연을 즐기려는 시민들은 먹을거리와 마실 거리를 준비하여 돛자리를 깔고 함께하였다. 문제는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다. 여름철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하늘마당 근처에 이동식 화장실과 포장마차 등을 활성화시켜 하늘마당이 광주 시민의 축제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빛의 숲'을 주제로 한 지상정원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주제로 꾸며, 늦가을이나 눈 쌓인 겨울에도 정취를 즐기는 시민들의 야간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ACC는 국내를 벗어나 국제적인 예술 기관이자 문화 교류 기관이라는 점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라는 숭고한 정신적 배경을 갖고 있기에 국내의 공연장들보다는 격이 높다. 따라서 ACC에서의 공연이나 전시, 강좌 등은 미국 뉴욕의 카네기홀 이상의 가치와 권위를 갖도록 위상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곳의 1차적 주인은 광주 시민이라는 점에서 ACC가 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복합 문화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5·18 진상 조사위’ 오로지 진실 규명 힘써야

우여곡절 끝에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이 연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월 진실 규명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5·18진상조사위원으로 이종협 전 국방부조사본부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등 두 명을 추천했다.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는 이미 추천돼 있다. 5월 단체는 이 전 기자와 차 전 판사가 과거 오월을 폄하하는 등 자격에 문제가 있지만, 조사위를 서둘러 꾸리도록 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한국당 추천 인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가 남아 있지만 5월 단체들이 이들 인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한 만큼 조사위원회 구성이 연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 조사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한국당은 그동안 문제 소지가 있는 인물 추천 등으로 조사위 출범에 차질을 빚어 왔다. 따라서 5월 단체들이 “이번

에 추천된 인사들이 활동 과정에서 5·18을 또다시 왜곡하거나 폄하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당연하다. 한국당 추천위원들은 이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조사위 활동과정에서 또다시 5월의 실체를 흐리는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이 전 기자와 차 전 판사는 진정성을 갖고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해 5월을 폄하한 과오를 씻어야 할 것이다.

향후 출범할 조사위는 오직 5월의 진실 규명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이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내년에 5·18 40주년을 맞지만 아직 ‘발포 명령자’, ‘헬기기총 소사’, ‘계엄군 성폭행’, ‘행방불명자’ 등 규명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조사위원들은 이번이 진상 규명의 마지막이라는 결연한 각오로 활동해야 한다. 광주 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조사위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고비 넘긴 수험생들 남은 시간도 보람 있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전국적으로 54만여 명이 시험에 응시했고 광주·전남에선 3만4000여 명이 84개 시험장에서 그동안 쌓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4년 만에 몰아친 ‘수능한파’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시험장 앞은 선배와 자녀를 응원하는 후배와 부모들의 열원이 따뜻한 온기로 전해졌다.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무난하게 치러졌지만 곳곳에서 수험생들의 긴장감을 반영한 사건도 벌어졌다. 순천에선 반대방향에서 버스를 탔던 수험생이 가까스로 시험장에 도착했고 광주 상일고에선 한 수험생이 시험지가 갑자기 안 보인다고 시험을 포기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광주 진월동에선 소방관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수험생과 어머니를 구조해 시험장으로 이송하는 등 모두가 무사히 수능을 치르는 데 힘을 보탰다.

수능 시험을 위해 수험생은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 수고했다. 짧게는 고교 3년,

길게는 12년의 공부 성과가 수능시험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만큼 늘 긴장감 속에 씬 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한 고비를 넘긴 만큼 이제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남은 시간을 얼마나 보람 있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느슨해진 마음에 일탈과 사건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강릉의 한 펜션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바람에 수능을 마친 친구들이 참사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일선 학교는 수능 이후 학생 생활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다 같이 나서 다양한 교양 강좌와 체험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無等鼓

홍공의 민주화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다. 홍공 시민들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고 있는 듯하다. ‘촛불혁명’을 ‘우산혁명’으로 이어받았고, ‘택시운전사’ ‘1987’ ‘변호사’ 등의한국영화를 ‘역권(逆權 운동)’의 상징으로 삼아 관람하며, 시위 현장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개사하거나 한 곡말 그대로 부르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 11일 홍공의 무장경찰이 비무장시위 청년을 향해 세 발의 실탄을 발사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마치 1987년 최후탄을 맞고 쓰러진 이한열을 연상케 했다. 그들은 말한다.

‘홍공이 광주고, 차우츠록이 이한열이며, 홍공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이라고.

그러나 지금의 홍공을 1980년 광주와 비교할 수는 없다. 만약 홍공에서 착각을 한 M16에 공병을 든 공수부대원들이 살인 진압을 하고 여성들을 성폭행한다면! 대규모 시위대를 향해 집단발포하고, 코브라·500MD·UH-1H 등 공격용 헬기를 동원한 기총소사로 수 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그레도 한국에서 보수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군과 경찰을 두둔할까?

그렇다 해서 지금 한국의 현실이 홍공에 비해 나은 것도 아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던 전두환은 치매를 주장하며 5·18 재판 출석을 거부한 채 골프를 즐겼다. 5·18 당시 헬기를 몰고 광주에 출동했던 항공부대 지휘관들은 광주 법정에서 “발진포 등 무장상태서 출격했지만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거기에 “탄피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 시민들이 헬기 소리를 요란하고 있다”며 황당한 꾀변을 늘어놓았다.

내년이면 5·18 항쟁도 40주년을 맞는다. 진상조사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한국당은 이종협·이동욱·차기환을 조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이동욱이 5·18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차기환이 세월호 진상조사를 어떻게 방해했는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추천위원 면면을 보면 조사보다 방해가 목적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5·18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끊이지 않는 것은 진실 규명과 이에 따른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죄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된다. ‘촛불 계엄문건’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지 않은가.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